

ISSN 2765-3005

Vol. 11 / 2022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ISSUE PAPER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및 과제

Vol. 11 / 2022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ISSUE PAPER

국립중앙도서관 이슈페이퍼 제11호

발행일 2022년 5월 30일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서혜란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0799

팩스 02-590-0546

누리집 <http://www.nl.go.kr>

ISSN 2765-3005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으며, 사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변경·배포할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및 과제

김혜진 주무관 온라인자료과

I. 온라인 자료의 수집	02
온라인 자료의 정의와 법적 근거	02
II.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 현황	03
1. 온라인 자료 납본대상 및 방법	03
2. 온라인 자료 납본 현황	04
3. 활용과 제한점	05
III.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 외 수집 현황	06
IV. 온라인 자료 수집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06
1. 한계와 고민 사항	06
2. 향후 과제와 시사점	07
참고문헌	08

| 주요 키워드 |

온라인 자료, 납본, 수집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표지,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 및 과제

김혜진 주무관 온라인자료과

요약

2021년 국립중앙도서관은 1,300만 오프라인 장서를 달성하였다. 이는 1965년 우리나라에서 납본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얻은 성과이다. 오프라인 자료 외에 온라인 자료도 1,800만 건 이상(디지털화 자료 1,000만 건과 납본, 자체 수집, 기증으로 수집한 온라인 자료 800여만 건) 소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온라인 자료 납본법이 시행된 후 납본으로 수집된 온라인 자료는 생산된 전체 온라인 자료 중 3% 수준에 불과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21년 9월 온라인 자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온라인자료과를 신설하였다.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자료의 특성상 소멸하기 쉬운 온라인 자료를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최신 정보 기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였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온라인 자료 납본법 시행 5년이 되고 온라인자료과를 신설한 것을 계기로 그동안 국립중앙도서관이 수행한 온라인 자료 납본 및 수집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온라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향후 과제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키워드 온라인 자료, 납본, 수집

I. 온라인 자료의 수집

국립중앙도서관은 2004년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보존 프로젝트인 오아시스(OASIS: 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사업¹을 추진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자료를 수집·보존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9년 3월 「도서관법」을 개정하면서 온라인 자료의 수집 및 보존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2011년 1월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를 제정·공포하면서 온라인 자료 수집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하였다.

그리고 2016년 8월 「도서관법」이 개정되어 온라인 자료 납본이 의무화되면서 소멸하기 쉬운 온라인 자료를 국가 지식문화유산으로 수집·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온라인 자료의 정의와 법적 근거

「도서관법」 제2조(정의)에서는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해서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되는 자료”라고 정의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0조(표 1 참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은 온라인 자료와 공공간행물의 디지털 파일은 ‘납본’으로 수집하고 그 외 온라인 자료는 「도서관법」 제20조의2(표 1 참조)에 따라 보존 가치가 높은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하고 있다.

〈표 1〉 「도서관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 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멸하기 쉬운 인터넷 자원(웹사이트, 웹자료)을 수집·보존하는 웹아카이빙 사업.

〈표 2〉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p>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p> <p>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納本)하는 도서관자료(법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p>
<p>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p> <p>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등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p>

그리고 온라인 자료의 종류와 형태는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국립중앙도서관 고시 제2011-1호)에서 〈표 3〉과 같이 지정하고 있다.

〈표 3〉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웹사이트 2. 웹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자자료(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등) 2) 음성·음향자료(음악자료, 음성자료, 음향자료 등) 3) 영상자료(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 4) 이미지자료(사진, 회화 등)
--

II.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 현황

1. 온라인 자료 납본대상 및 방법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은 온라인 자료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디지털 파일을 납본 수집한다. 구체적인 납본대상과 납본 방법은 〈표 4〉와 같다.

〈표 4〉 납본대상 및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자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디지털 파일(공공간행물, 학위논문 디지털 파일)
납본 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국내에서 발행·제작한 개인 또는 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납본 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표준자료번호 받은 온라인 자료: 2부 공공간행물 디지털 파일: 3부
납본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중앙도서관 ISBN·ISSN·납본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자료의 서지정보와 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 자료의 서지정보와 파일이 있는 인터넷상 위치(URL 등)를 국립중앙도서관에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
납본 보상	판매용 자료로서 열람용 납본 부수에 대해 정가 보상
제출 기한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The screenshot shows the '국립중앙도서관 ISBN·ISSN·납본시스템' (National Central Library ISBN·ISSN·Submission System) interface.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서비스안내', 'ISBN', 'ISSN', '납본', and '계정관리'. The '납본' (Submission) section is active, with sub-tabs for '온라인 자료 납본 안내', '납본 등록' (highlighted with a red box), '납본 조회', '납본서/보상청구서', and '납본증명서'. The '납본 등록' form contains the following fields:

- ISBN: 979-11-6513- [] 선택 - [] ※ 서명시별번호 선택
- 부가기호: [] 부가기호 선택
- 서명: []
- 권자: [] 저자: []
- 출판사: 국립중앙도서관 제작사: [] 출판사와 같을 경우 체크
- 정가: [] 선택 페이지수: []
- 전자책 제작일: [] 인쇄책 출판일: []
- 담당자: ISBN(자료수집과) ※ 담당자 등록/수정은 **담당자 정보관리**에서만 가능 휴대폰: 010-000-0000
- 이메일: [] 팩스번호: []

[그림 1] '국립중앙도서관 ISBN·ISSN·납본시스템' 온라인 자료 납본 등록

*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ISBN·ISSN·납본시스템(<http://nl.go.kr/seoji>)(검색일: 2022. 5. 9.)

2. 온라인 자료 납본 현황

납본으로 수집한 온라인 자료는 ISBN을 받은 전자책, ISSN을 받은 전자저널(학술지), 공공간행물 및 학위논문 디지털 파일 등으로 나뉘며, 음성 파일 형태의 오디오북도 ISBN을 받은 자료에 한해 시범적으로 납본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온라인 자료의 납본 현황을 자료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연도별 온라인 자료 납본 현황

(단위: 건)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자책	16,785	16,998	17,001	22,598	23,406
전자저널	5,190	5,285	11,174	132,308	64,025
공공간행물	11,525	24,303	36,635	27,162	27,019
학위논문	34,679	36,103	40,149	35,434	32,883
음성음향	3,013	4,775	6,143	5,207	4,455
계	71,192	87,464	111,102	222,709	151,788

* 2020년 전자저널 납본 건수: 소급자료의 일괄 납본 포함.

3. 활용과 제한점

납본된 온라인 자료는 원칙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열람용 1부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작권법」 제31조에 따라 동시접속자 1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저장이나 복사(인쇄), 화면 캡처 등이 불가능하고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가 적용된 납본 전용 뷰어로만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 외부에서 이용하도록 이용 동의를 받은 공공간행물이나 학위논문 등은 어디서든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 허락 범위에 따라 인쇄를 하거나 저장을 할 수도 있다. 이뿐 아니라 수집된 온라인 자료는 방화벽과 최신 보안 시스템이 설치된 환경에서 보존용 파일 접근 제한, 자료관리시스템 접속 기록 관리 등 여러 보안 방법으로 관리·보존된다.

2016년 8월 처음 온라인 자료 납본법이 시행된 후 전자책은 1,818건을 수집한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1965년 3월 납본법이 시행되고 50여 년이 지나 제도적으로 안정된 오프라인

자료에 비해 온라인 자료의 납본은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출판사나 제작사, 공공기관, 학회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료 납본제도를 홍보하고 실무 담당자 교육을 하는 등 온라인 자료 납본제도가 정착되도록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Ⅲ.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 외 수집 현황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 방법 이외에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보존 가치가 높은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기적으로 수집하거나 '온라인 자료 선정 전문가 그룹'에서 수집대상을 선정해 수집하기도 한다. 또한 대한민국 웹사이트는 오아시스(OASIS) 사업을 활용해 웹수집기로 자동 수집하며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는 해당 자료가 있는 누리집에 들어가 직접 수집하거나 오프라인 자료와 마찬가지로 기증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온라인 자료 수집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연도별 온라인 자료 '납본' 외 수집 현황

(단위: 건, 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자책	21,283	24,280	55,227	21,358
전자저널	45,955	49,832	98,823	72,895
음성음향	19,791	17,838	27,653	25,348
영상	5,986	6,093	11,236	9,205
이미지	-	-	23,840	19
웹사이트	220,247	195,372	133,354	128,438
장애인 대체자료	36,523	16,030	-	7,068
계	349,785	309,445	350,133	264,331

수집된 온라인 자료는 저작권이나 이용 서비스 허락 범위에 따라 공개범위가 결정되어 국립중앙도서관 관내는 물론 외부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허락된 이용범위에 따라 열람만 할 수 있거나 인쇄 또는 저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비공개 자료도 수집해 보존한다.

IV. 온라인 자료 수집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1. 한계와 고민 사항

최근 전자책 출판시장이 커지면서 전자책이 엄청나게 출판되고 있지만, 정확히 얼마나 많이 출판되는지 파악할 통계자료가 없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전자책을 발간하려고 신청한 ISBN 발급 자료를 기준으로 수집하지만 이 또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ISBN을 신청할 때는 미리보기, 체험판, 연재 중인 자료 등 납본 제외 대상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실제 출판이나 유통으로 이어지지 않는 자료도 많아서 정확한 수집 기준을 잡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을 만한 전자책 출판 통계를 근거로 온라인 자료의 수집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나 방법 등을 모색하여 좀더 체계적으로 수집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판단체, 유관기관 등이 함께 전자출판물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해서 배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 기술 환경이 발전하면서 출판 생태계도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따라 점점 변화하고 있다. 과거 텍스트 중심의 ‘책’에서 벗어나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출판되고, 더 나아가 게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의 디지털 콘텐츠 등 새로운 유형의 자료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떤 자료들을 수집해서 보존할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 등 온라인 자료의 수집대상과 범위, 이용 서비스에 대한 고민도 점점 커지고 있다. 앞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도서관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온라인 콘텐츠를 수집·보존하려면 제도적·기술적·인적 제한을 해결하는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 향후 과제와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납본제도가 시행된 지 5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종이책은 출판하면 ‘납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았다. 그러나 온라인 자료는 납본법이 시행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더라도 납본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출판사나 출판 전문단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출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납본제도가 좀 더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려면 관련 법이나 제도의 개선, 출판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ISBN 발급 자료의 유형, 실제 출판 유통 여부 등 전자책 출판 현황뿐만 아니라 새롭게 나타나는 디지털 콘텐츠의 유형, 제작, 소비 추세까지도 조사 연구해서 온라인 자료의 수집·보존·이용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 전략도 세워야 한다.

온라인 자료는 빨리 생산하는 만큼 빠르게 소비되고 소멸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더 늦기 전에 순식간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소중한 온라인 자원을 국가 지식문화유산으로 수집·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도서관법」 법률 제17706호

국립중앙도서관 고시 제2011-1호「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국립중앙도서관 ISBN·ISSN·납본시스템[검색일: 2022. 5. 9.]. 출처: <http://nl.go.kr/seoji>

국립중앙도서관(2021). 『국립중앙도서관 연보』, 2020.